

“배민 인수뎀 요기요 매각해야” 공정위, 조건부 승인 ‘배달공룡’ 결합 멈춰

배달앱 1·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결합이 불투명해졌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딜리버리히어로(DH) 코리아 측에 요기요를 매각할 경우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 결합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승인을 담은 기업 결합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배달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DH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의 지분 87%를 40억 달러(약 4조7500억원)에 인수한다고 발표하고, 기업 결합 신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토종 인터넷 기업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M&A로 주목받기도 했다.

**DH, 공정위 판단에 이의제기 예고
공정위 “점유율 90% 독과점 예상
수수료 인상 등 우려 목소리 고려”**

DH는 우아한형제들과 힘을 합쳐 급성장하는 배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1년여의 기간이 소요된 기업 결합 심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오면서 DH의 고민이 깊어졌다. ‘일정 기간 동안 수수료 인상 제한’ 등을 조건으로 내걸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2위 배달앱인 요기요를 매각하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DH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DH는 추후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공정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DH는 요기요 매각 반대 대해 “기업결합의 시너지를 통해 한국 사용자들의 고객 경험을 향상하려는 DH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고 음식점 사장님과 라이더, 소비자를 포함한 지역사

회 모두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가 두 기업이 결합할 경우 배달앱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해 독과점 폐해가 예상되고, 수수료를 인상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을 고려해 결정을 내린 만큼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초반부터 정보독점 문제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시장조사업체 닐슨코리아클릭에 따르면 9월 이용자 수는 배달의민족(1317만명·59.8%), 요기요(661만명·30.0%), 쿠팡이츠(150만명·6.8%), 쿠팡이츠(150만명·6.8%), 배달통(26만명·1.2%) 순으로 나타난다.

시민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참여연대는 12일 논평을 통해 “하루 빨리 배민 기업결합 심사를 불승인하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공정위는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모바일 시장에서 학살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도록 본연의 임무를 주지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공정위의 심사 결과가 바뀌지 않을 경우, DH는 요기요를 팔고 배달의민족을 가져갈지 인수합병을 엮던 일로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DH가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다음 달 9일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적인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결정할 예정이다.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DH는 현재 글로벌 40개 국가에서 28개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시장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DH와 우아한형제들 간 조건부 결합 승인을 낸 것 같다”며 “최종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결국 DH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밝혔다. /구세원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화이자·모더나, 연내 총 2000만명 분 생산

>> 1면 ‘모더나 백신…’서 계속

◆미국 연내 접종 시작, 국내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까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며 미국에선 연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을 최대한 빨리 긴급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할 계획임을 밝혔다.

외신 등에 따르면 앨릭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이날 인터뷰를 통해 “화이자·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긴급사용을 승인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과학과 증거, 법률이 승인을 지지하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미국인 모두에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이 공

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화이자와 FDA의 긴급 승인을 받은 경우, 올해 말까지 2000만 도즈(2회 접종 기준, 1000만명 분) 분량을 공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내년에는 13억 도즈를 생산한다. 모더나 역시 올해 안에 1000만명 분, 내년에는 5~10억 도즈를 생산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아직 화이자와 모더나 등 글로벌 기업들과 선구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개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의 접종은 빠르면 12월 또는 1월부터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나라도 접종 시기를 그에 맞춰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lee@

文 대통령, APEC·G20 정상회의 등 참석

20일 APEC, 21일 G20 화상 개최
코로나19 대응 논의, 방역경험 공유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0일 아시아 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오는 21~2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올해 화상으로 개최하는 APEC, G20 정상회의에서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공동 번영의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한 인적·잠재력 최적화’다. 청와대에 따르면 올해 APEC 정상회의에서는 전례 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에 21개 회원국들이 역대 코로나19 대응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APEC의 장기 목표가 될 미래 비전을 채택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한 인도적 지원 및 치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7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APEC·G20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료제·백신 개발 등 국제사회에 한국 정부가 기여하는 점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세계 공급망 유지 및 디지털 경제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한국 정부의 사회안전망 강화 노력을 역대 포용성 강화를 위한 선도적인 사례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APEC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 2040년까지 APEC 활동 방향을 제시할 미래 비전에 합의함으로써 APEC이 여전히 견실한 기구임을 보여줄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21~22일 밤 화상으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제는 ‘모두를 향한 21세기 기회 실현’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G20 회원국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 및 미래감염병 대비 역량 제고 방안과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만들기 위한 정책 공조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필수 인력의 국경 간 이동 원활화 등 코로나 대응 차원에서 국제공조 강화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그린·디지털 뉴딜 정책도 소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대변인은 “(문 대통령)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도 ‘G20이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산재 사망률 OECD 상위권… 불명예 벗어나야”

文 대통령, 화상 국무회의
“산재로 목숨 잃어 매우 안타까워”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동안 정부가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을 목표로 노력했음에도 건설 현장 내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으면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산재 사망률 상위권인 점을 언급하며 “이제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전대일 열사 50주기’를 언급하며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아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의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에 대한 관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독 강화 ▲일명 ‘김용균법’이라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 ▲위험의 외주화 방지 및 원청 책임 강화 제도 도입 등 산재 사망사고 감축과 관련한 노력을 언급한 뒤 “기대만큼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전체 산재 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의 사망사고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건설 현장 사망사고 감축 차원에서 현 정부 들어 ▲300명에 가

까운 산업안전 감독관 증원 ▲지자체와 함께 불시 현장 순찰 방식 도입 ▲건설 안전 지킴이 투입 ▲소규모 건설 현장 내 안전설비 설치 비용 등 재정 지원 확대 등 정책을 펼친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데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감독해야 할 건설 현장에 비해 감독 인력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고, 대부분 일회성 감독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영훈 기자

LG ‘롤러블폰’ 공개… 새 경쟁자 급부상

>> 1면 ‘롤러블폰’ 공개… 새 경쟁자 급부상

내년 화웨이의 새로운 모델을 기대해볼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오포는 이번달 17일 LG전자에 훨씬 앞서 롤러블폰을 공개하며 플래그십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경쟁자로 떠올랐다. 비보가 화웨이 기린 대신 삼성전자 엑시노스 1080을 도입한 플래그십을 내놓는 등 다른 브랜드들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화웨이가 17일 브랜드 ‘아너’를 즈신신정보기술에 매각하면서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플러블폰 경쟁도 전선이 확대된다.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협력사에 플러블폰 샘플 제작을 지시했다. 개발이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출시 일정은 2022년으로 알려졌지만, 내년부터 일부 정보들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도 포스트 플러블폰을 준비중으로 보인다. 당장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디자인 전략 회의에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들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는데, 지난해 특허를 출원했던 익스펜더블 형태 제품과 비슷하다는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이미 시제품

이 완성됐다면 내년 깜짝 공개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아울러 최근에는 2번 접는 형태의 새로운 플러블 폰 특허를 출원하기도 했다.

스마트폰 시장도 성장 기대감이 높다.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SA)는 내년 스마트폰 시장이 올해보다 9% 가량 확대된다고 봤다. 경기 회복과 경쟁 심화 때문이다. 2022년부터는 다시 전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년 스마트폰 시장은 올해보다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며 “폼팩터 경쟁까지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제품이 시장에 출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용 기자 juk@